

책으로 뭘 하지?

독서 활동지



책으로 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즐거운 상상!



프란체스카 마스케로니 글 | 프란체스카 아이엘로 그림
김경희 옮김 | 값 16,000원 | 초등 전 학년

“염소 아저씨에게 책은 ‘마법’인 것처럼 선생님에게 책은 ‘물감’이에요.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내용을 섞어서 새로운 색이 나오기도 하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나만의 색으로 칠할 수도 있어요. 점점 칠할수록 다양한 색깔이 섞여 무지개색을 만들어 내고, 알록달록 멋지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준답니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색깔을 가진 세상이 만들어지지요! 여러분에게는 책이 무엇인가요?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염소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같이 생각해 봐요. 분명 마법 같은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 집필 전진서(인천 병방초 교사)

현직 초등교사가 전하는 《책으로 뭘 하지?》의 매력



어느 날 염소 아저씨는 베티 고모님께 상자들을 받습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주 많은 책이에요. 한 번도 책을 가져 보지 못한 염소 아저씨는 상상력을 이용해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새롭게 이사 온 생쥐 씨가 놀러 왔을 때도 책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생쥐 아저씨의 말 한마디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책’은 읽을 수도 있다는것을요. 생쥐 씨의 도움으로 염소 아저씨는 비로소 책을 ‘책’으로 이용할 수 있었답니다. 책 속의 인물들도 만나고, 감정을 느끼고, 위로를 받는 등 염소 아저씨는 책에 푹 빠지게 됩니다.

염소 아저씨에게 책은 ‘마법’인 것처럼 선생님에게 책은 ‘물감’이에요.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내용을 섞어서 새로운 색이 나오기도 하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나만의 색으로 칠할 수도 있어요. 점점 칠할수록 다양한 색깔이 섞여 무지개색을 만들어 내고, 알록달록 멋지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준답니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색깔을 가진 세상이 만들어지지요!

여러분에게는 책이 무엇인가요?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염소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같이 생각해 봐요. 분명 마법 같은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 전진서(인천 병방초 교사)

표지를 살펴보며 이것저것 상상해 보아요.

책은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그림 속 책은 왜 많을까요?

염소 아저씨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염소 아저씨의 표정을 보아요.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책을 갖고 있나요?



- 1 염소 아저씨는 책을 다양하게 쓰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쓰고 있는지 떠올려 보아요.



- 2 나라면 책으로 무엇을 할까요? 나만의 책 활용법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아요.

인물의 마음을 되짚어 보기

《책으로 뭘 하지?》 내용을 떠올리며 염소 아저씨의 마음을 짐작해 보아요.

이야기 상황

책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때

인물의 말이나 행동

- 높은 선반에 손이 닿지 않을 때
책으로 발돋움을 만들면 쉽게
원하는 걸 꺼낼 수 있어요.
- 두툼한 책을 서너 권 쌓으면 멋
진 발 받침이 되지요. 텔레비전
을 볼 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인물의 마음

책을 읽을 때

- 책을 읽으면 뒤뜰의 그물침대
에 누워서도 세계 여행을 씩씩
다닐 수 있어요.
- 책에 푹 빠지면 콧물이 주룩주
룩,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것도
잊지요.



염소 아저씨의 편지

염소 아저씨는 생쥐 씨 덕분에 글 쓰는 법을 익혀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었어요. 만약 염소 아저씨가 생쥐 씨에게 엽서를 보낸다면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을지 생각해 보고 멋진 엽서를 써보아요.









나만의 책장 만들기

책을 꽂아 두는 곳을 책장이라고 해요. 나만의 책장이 있다면 어떤 책들이 꽂혀 있을까요?
한번 꾸며 보아요.

